



[뉴스]
금융위 vs 금감원
결국 충돌한
감독당국
02



코스피 2068.69 (-32.62)	코스닥 678.38 (-22.74)
금리 (국고채 3년) 1.84 (-0.06)	환율 (원·달러) 1120.30 (+6.20) (6일)



연말을 맞은 상가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Q 르포 |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 앞둔… 벼랑끝 자영업자 만나보니

“알바생 보내고, 몸으로 때웁니다” 로또 긁는 사장 “가게접고 싶어요”

취재를 하기 위해 서울시내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어갔더니 A 사장님의 직업 로또를 하고 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사장님의 로또하는 거 처음봐요. 1등 되시면 뭐 하시려고요.”

기자의 질문에 사장님은 대뜸 “가게 접고 은퇴하렵니다”라며 둘 하게 받아친다. 연배가 좀 있으신 것 같아 물었더니 “1948년생”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최저임금이 올해와 내년에만 27.3%나오는데다 경기침체까지 길어지면서 칠순이 넘은 편의점 사장님이 기댈 곳은 로또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인다.

컵라면을 먹으면서 말을 이어갔다.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오자 A 사장님은 “그것 때문에 미치겠다. 가게는 안돌아가는데….”라며 응수 했다. 그러면서 ‘3개월 수습 알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뭔가 싫어 되물었다.

그러자 A 사장님은 “3개월까진 최저임금의 70%를 주고 3개월이 지난후엔 최저임금에 맞춰 시급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을 시킬만하면 알바생이 도망을 가고,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벽차다보니 불법인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거다.

실제 몇년 전엔 고용한 알바생이 티머니에 100만원을 충전하고 도망갔던 쓱쓸한 경험도 했다.

알바생을 3개월 이상 끌어놓



소상공인들이 지난 8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비를 맞으면 집회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알바생 잡고 비용 감축위해
‘3개월 수습’ 범법경영 불사
일자리자금은 안받아도 그만

최저임금 부담에 직원 감소
직접 몸으로 때우는게 최선

고, 비용도 줄이기 위한 편의점 사장님의 경영 노하우인 셈이다.

취재를 하는 중에 편의점을 여러개 운영하는 B사장님도 만났다.

“돈 좀 버시겠는데요”라고 문자 그에게 대뜸 돌아온 답은 “운영하기 힘들다. 알바생 돈주려면 가게를 하나 떨어뜨려야 한다. 편의점은 하지 마라”는 충고였다. 실제 B사장님은 편의점 한 곳을 팔기 위해 매물로 내놨다.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은 신청할 엄두도 내질 못하고 있다.

B사장님은 “4대 보험을 적용해

야하는데 우린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C사장님은 “최저임금 올리면 4대 보험료나 퇴직금도 다 인상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으로는 떡도 없다”며 싸늘하게 반응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그렇지만 알바생들이 끼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버지와 함께 서울 마포에서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D씨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4대 보험이 꼭 필요한데 알바생들이 안하려고 하더라”며 “세금떼이는 게 싫다는 거다. 올해 관련 정책이 바뀌었다는 안내를 보고 상담 전화도 해보려 했지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만뒀다”고 전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해 활용하고 있다는 사장님도 마뜩잖기는 마찬가지다.

한 떡볶이 가게 사장님은 “받아 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인데 하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아쓰라고 해서 신청해 받고는 있다”면서 “(주는 돈은) 새발의 피다. 2014년에 세월호 사건부터 매르스, 그리고 사드 등 자영업자들에겐 악몽의 시기였다. 최저임금은 문제 하나 더 얹은 것 뿐이다. 부스러기 돈을 이런데 쓰지 말아야 한다. 경기가 좋아져야 하는데 정책의 포인트가 뭔지를 (정부는) 잘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질 않고 최저임금 등 비용만 늘어나다보니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사람을 줄이는 대신 자신의 몸으로 때우는 것 뿐이다.

한 때 자신을 포함해 5명이 일했던 떡볶이 가게도 지금은 사장을 포함해 2명으로 인원을 줄였다.

서대문구 대현동의 한 음식점 사장님은 “상권도 죽었고, 최저임금 때문에 두달 전까지 쓴던 알바생도 쓸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직원도 한 명 내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줄이는 분위기다. 앞집도 옆집도 마찬가지”라면서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매달 나흘이 휴무인데 생리휴가를 달라는 분도 있고, 회사가 아닌데도 원하는 것이 더 늘어난 상태”라고 전했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배한님·석대성·홍민영 수습기자
bada@metroseoul.co.kr